

# 브라질 신임 재무장관 Joaquim Levy 임명 및 시장반응

(’14. 11. 28)

상파울루사무소

## 1 배 경

- 좌파 성향의 지우마(Dilma)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차기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와 친시장 성향의 경제팀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가운데, 지우마 대통령은 결국 시장에서 적격 인물로 거론된 Joaquim Levy를 차기 재무장관으로 임명
  - 대선 전후 Dilma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시장 친화적인 인물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임.

## 2 신임 재무장관의 이력

- Joaquim Levy(61년생)는 브라질 Rio de Janeiro 출신으로 학부에서는 선박공학을 전공 하였으나 FGV(브라질)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
  - 신임장관은 Economist로서 IMF(’92), 유럽중앙은행(’99)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, ’03년 룰라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룰라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담당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받음.
  - ’13년 이후 재무장관 임명되기까지 2년간 브라질의 대표적인 민간상업은행 Bradesco의 자산운용사인 Bradesco Asset Management CEO로 재직하면서 사내에서 존경받는 CEO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, 대외적으로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그동안 차기정부의 적격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어 왔음.

### 3

#### Levy 임명의 의미

- 금번 신임 재무장관 임명은 브라질이 향후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기등급까지 강등될지의 기로에 서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큼.
- 현지 언론들은 Levy가 브라질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,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으로 현재 위기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논평하고 있음.

### 4

#### 시장의 반응

- 주 초반 금융 시장은 Levy의 친시장 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반응
  - 임명 발표 전 BOVESPA 지수는 55,560p까지 상승하고 헤알/달러 환율은 2.5까지 하락(11.25)
- 그러나 정부재정의 투명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대비 공공 부채를 줄이겠다는 Levy의 발표에도 불구하고,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있다는 실망감으로 주말 시장 분위기는 하락세로 반전
  - BOVESPA 주식시장 전주대비 2.5% 하락한 54,664, 헤알/달러 환율은 전주 대비 2.01% 상승한 2.57을 기록(11.28)